

NEWSLETTER

기후분석정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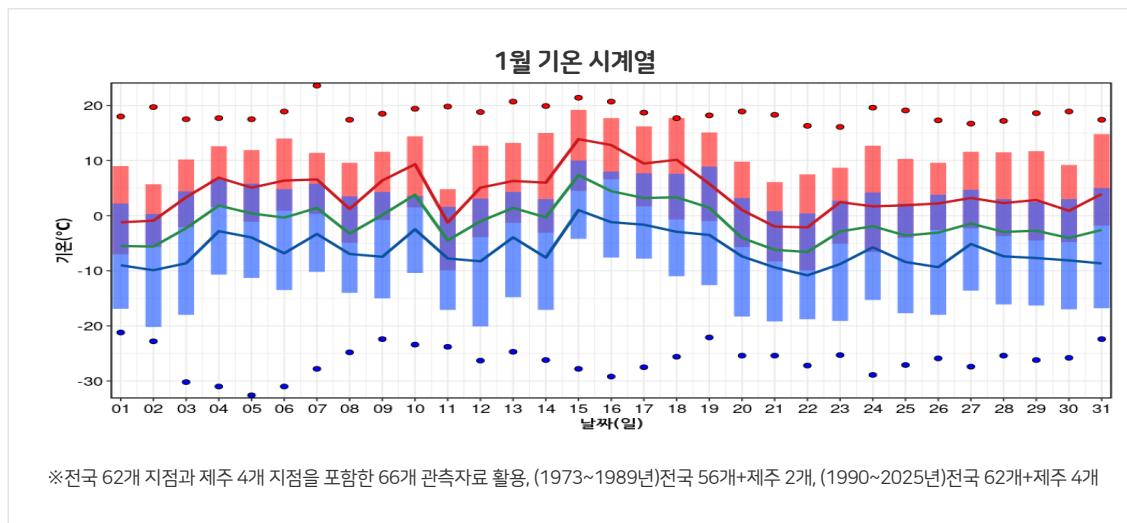
1월 우리나라 기후동향

요약

음의 북극진동과 베링해 블로킹 영향으로 하순 강추위 지속되었던 1월

- 평균기온 -1.6°C 로 평년(-0.9°C)보다 0.7°C 낮아, 2018년 이후 8년 만의 평년보다 낮은 1월 기온
 - 큰 기온 변동(상순 평년 수준 \rightarrow 15~18일에 반짝 고온 \rightarrow 20일부터 추위 지속)
 - 강수량 4.3mm 로 평년(26.2mm) 대비 19.6% 수준(하위 2위), 상대습도 53%로 역대 가장 낮아

기온



현황

- 전국 평균기온은 -1.6°C 로 평년보다 0.7°C 낮았습니다. 1~3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졌으나 이후 상순 동안은 대체로 평년 수준이었고, 15~18일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하층에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가, 하순 기간 북극의 찬 공기가 유입되며 강한 추위가 열흘 이상 지속되었습니다.

기온 관련 기상요소별 순위 (1973년 이후 전국평균)

구분	2026년 1월			
	평균값 (°C)	평년값 (°C)	평년편차 (°C)	순위(하위)
평균기온	-1.6	-0.9	-0.7	17위
평균 최고기온	3.8	4.4	-0.6	19위
평균 최저기온	-6.8	-5.7	-1.1	13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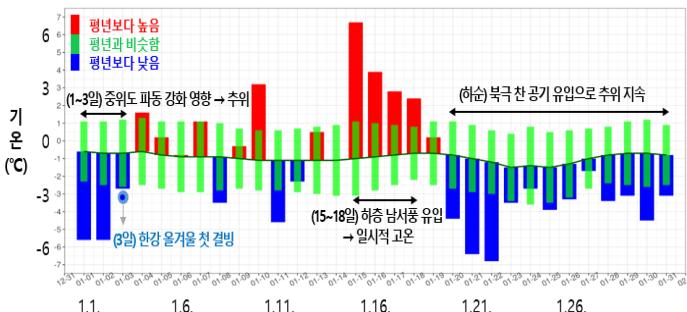
※ 전국평균: 1973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((1973~1989년) 56개 지점, (1990~2026년) 62개 지점)

※ 평년값: 1991~2020년 적용



기온 특성 및 원인

1월 일별 전국 평균기온 시계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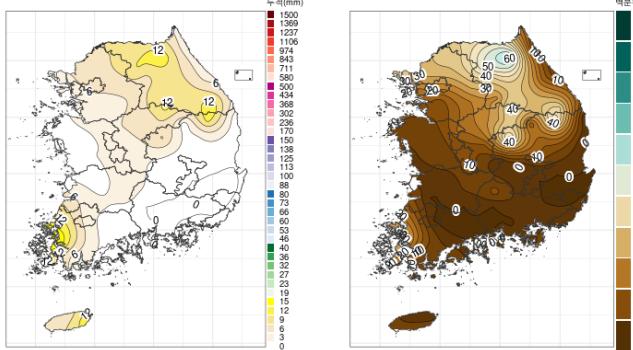


원인

- (1~3일) 그린란드 부근의 북대서양에서부터의 대기 파동 강화로 상층 찬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.
- (15~18일) 대기 파동 강화가 해소되고 기압계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하층에 남서풍이 유입되어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.
- (하순) 음의 북극진동과 관련한 북극 찬 공기의 중위도 남하, 동시베리아~베링해 블로킹 발달 등으로 인해 상층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추위가 지속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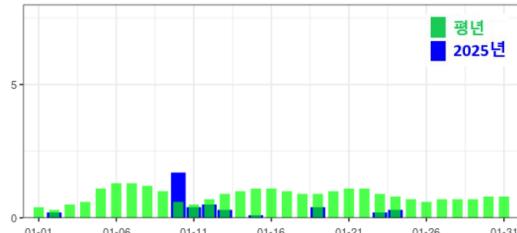
강수량

2026년 1월 전국 강수량(mm)과 퍼센타일(%ile)



※ 전국 62개 지점과 제주 4개 지점을 포함한 66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

2026년 1월 전국 강수량 시계열(mm)



※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

현황

- 1월 전국 강수량은 4.3mm로 평년(26.2mm)의 19.6% 수준으로 역대 두번째로 적었고, 강수일수는 3.7일로 평년보다 2.8일 적었습니다(하위 4위). 전국 상대습도도 53%로 역대 가장 낮았고 건조한 경향이 이어졌습니다.

원인

- 상층 찬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자주 발달하여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평년 대비 더 강하게 불면서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적었습니다.

강수량 관련 기상요소별 순위 (1973년 이후 전국평균)

구분	값	퍼센타일(강수량)/평년편차(강수일수)	순위(하위)
강수량	4.3mm	0%ile	2위
강수일수	3.7일	-2.8일	4위

※ 전국평균: 1973년 이후부터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((1973~1989년) 56개 지점, (1990~2026년) 62개 지점)

※ 평년값: 1991~2020년 적용



이상고온 및 기상가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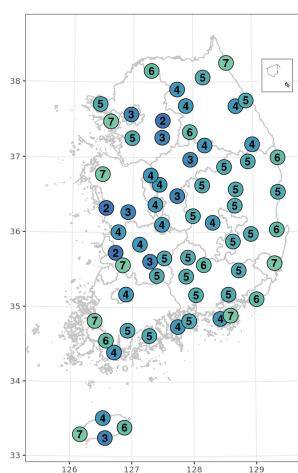
이상고온·저온 발생일수

▶ **이상고온(저온) 발생일수:** 이상고온(저온)은 평년(1991~2020년)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 극한현상으로 일최저·최고기온이 90퍼센타일 초과(10퍼센타일 미만)에 해당하는 일수를 나타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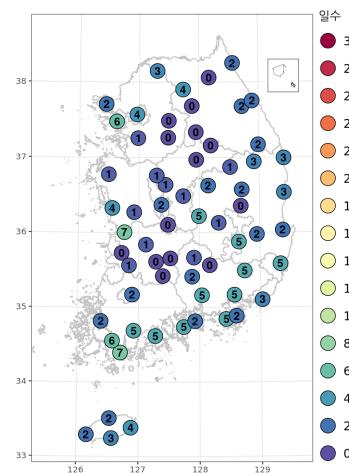
※ 퍼센타일: 평년(1991~2020년) 같은 기간에 발생한 기온을 비교하여 작은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 나타내는 백분위수



최고기온 기준 이상저온 발생일수(일)



최저기온 기준 이상저온 발생일수(일)



• **최고기온 기준 이상저온 발생일수:** 4.7일(작년 2.1일)

• 주요지점 발생일수: 속초 7일, 인천 7일, 서산 7일, 울산 7일, 목포 7일, 고산 7일, 정읍 7일, 거제 7일, 철원 6일, 원주 6일

• **최저기온 기준 이상저온 발생일수:** 2.3일(작년 1.7일)

• 주요지점 발생일수: 군산 7일, 완도 7일, 인천 6일, 해남 6일, 추풍령 5일, 대구, 5일 울산, 5일, 창원 5일, 통영 5일, 여수 5일

* 평균방법: 각 지점별 이상기온 발생일수
산출 후 62개 지점 평균

기상가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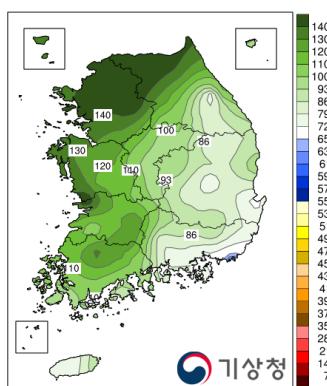
▶ **기상가뭄:** 최근 6개월('25.8.1.~'26.1.31.) 누적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은 현상

▶ **기상가뭄 판단 기준:** 최근 6개월 강수량(표준강수지수*)에 따라 약한-보통-심한-극심한 가뭄인 4단계로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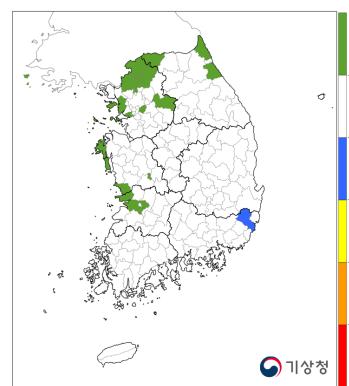
*표준강수지수(기상청): 최근 누적강수량과 과거(1973년~전년) 동일기간의 강수량을 비교하여 가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

*습함(1.0 이상), 정상(0.99~0.99), 약한 가뭄(-1.00~-1.49), 보통 가뭄(-1.50~-1.99), 심한 가뭄(-2.0 이하), 극심한 가뭄(-2.0 이하 20일 이상)

강수평년비(%)



가뭄 현황



• **6개월('25.8.1.~'26.1.31.) 누적강수량:**

- 전국 누적 강수량 637.7mm
로 평년(602.8mm) 대비
105.9%입니다.

* 전국 평년비: 제주(4개 지점)를 제외한 62
개 지점의 평년비를 평균한 값

• **가뭄 현황(1.31. 기준):**

- **울주군**에 기상가뭄이 있습니다.



주요 기후요소 비교 - 기온·강수량

작년 비교

• 1월 전국 평균기온은 작년보다 1.4°C 낮았고, 강수량은 작년보다 12.5mm 적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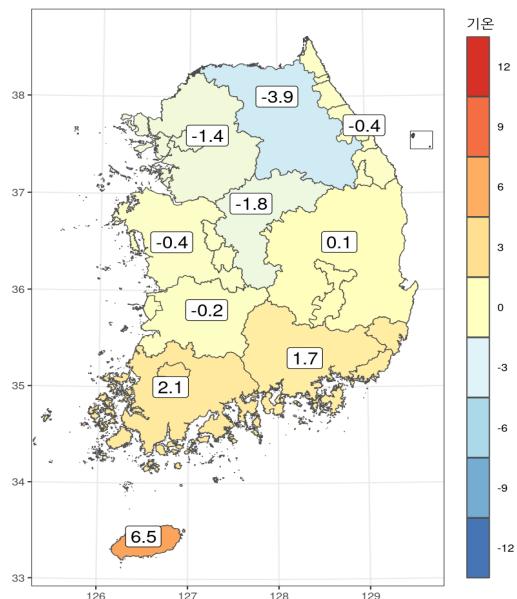
• [기온] 올해(-1.6°C) vs 작년(-0.2°C)

전국적으로 기온이 작년보다 낮았고, 작년 대비 $-2.4\text{~}-0.4^{\circ}\text{C}$ 분포를 보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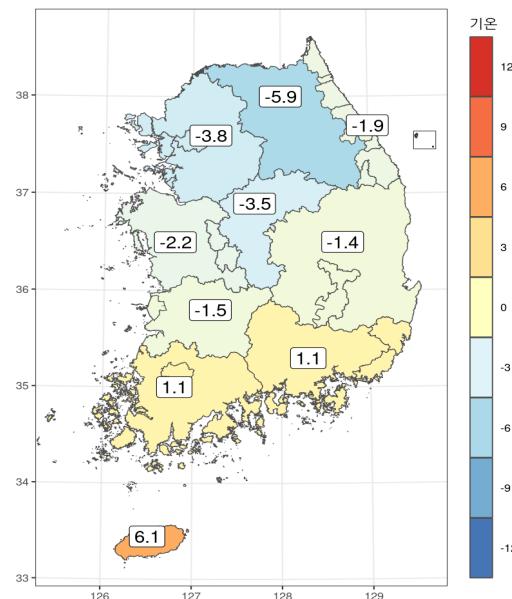
• [강수] 올해(4.3mm) vs 작년(16.8mm)

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작년보다 적었고, 작년 대비 $-35.9\text{~}-3.6\text{mm}$ 분포를 보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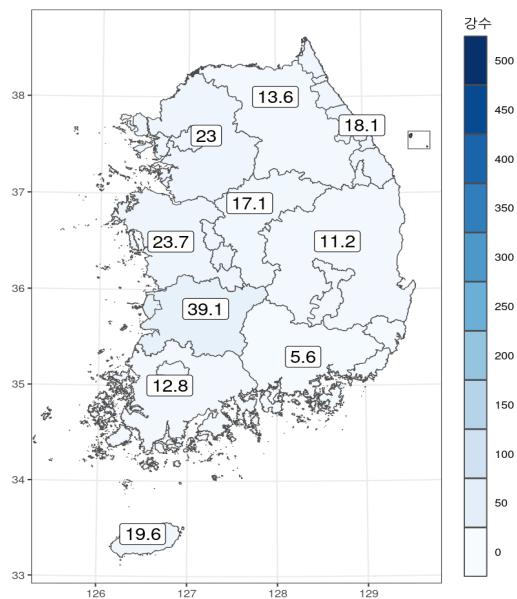
2025년 1월 평균기온($^{\circ}\text{C}$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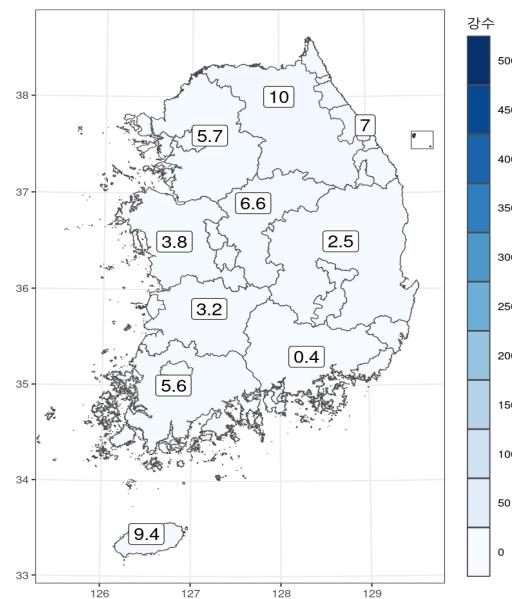
2026년 1월 평균기온($^{\circ}\text{C}$)



2025년 1월 강수량(mm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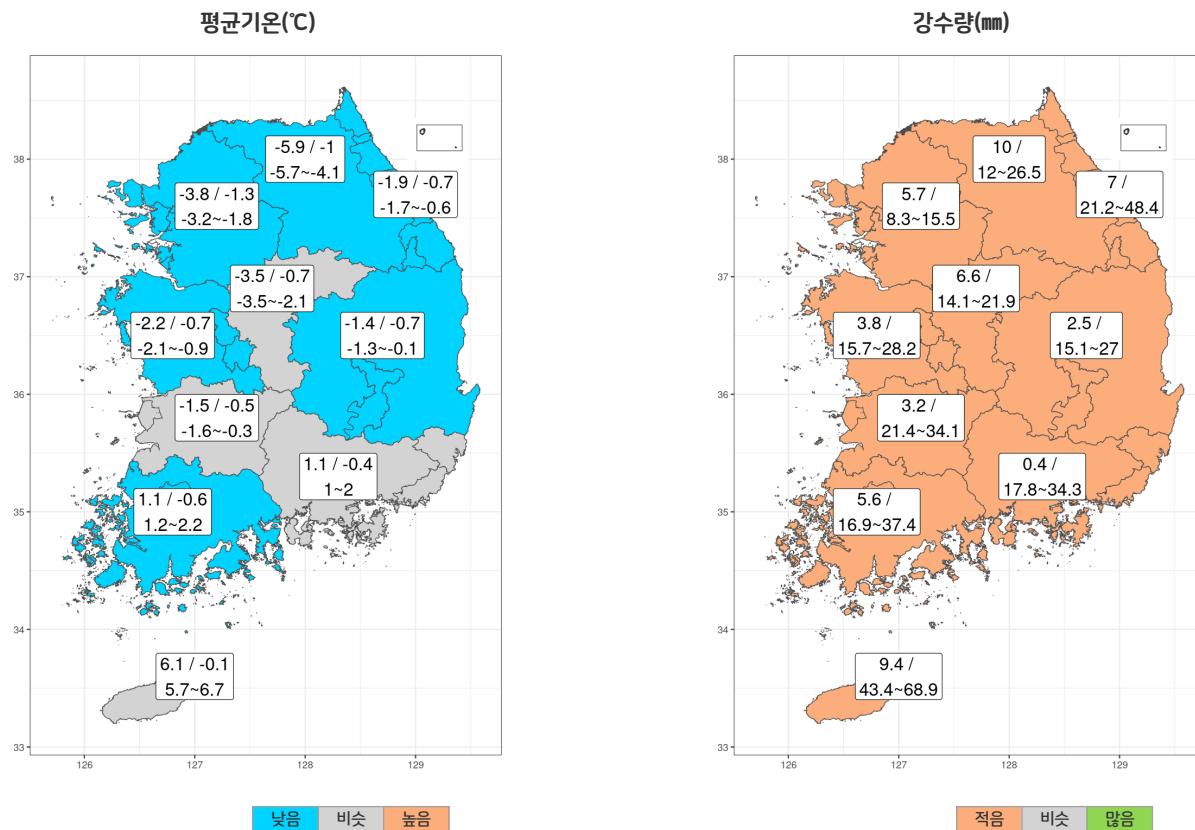
2026년 1월 강수량(mm)



※ 전국 66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(제주 평균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4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)

평년 비교

- 1월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0.7°C 낮았고,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.
- (기온) 전국 평균기온은 -1.6°C 로 평년(-1.5°C ~ -0.3°C)보다 낮았으며, 수도권, 강원, 충남, 전남, 경북 지역은 평년보다 낮았고, 그 외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였습니다.
- (강수량) 전국 강수량은 4.3mm 로 평년(17.4mm ~ 26.8mm)보다 적었으며,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습니다.



※ 네모 박스 위: 월 평균값($^{\circ}\text{C}$)/편차($^{\circ}\text{C}$)
아래: 평년(1991~2020년) 비슷범위($^{\circ}\text{C}$)

※ 네모 박스 위: 월 누적값(mm),
아래: 평년(1991~2020년) 비슷범위(mm)

※ 평년비슷범위: 과거 30년(1991~2020년)간 연도별 30개의
평균값 중 대략적으로 33.33%~66.67%에 해당하는 값

상한 평균기온의 평년값
하한 강수량의 평년값

우리나라 월별 평균기온 평년편차와 순위 (2025년 2월 ~ 2026년 1월)

년/월	2025년												2026년	기준
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	
월평균($^{\circ}\text{C}$)	-0.5	7.6	13.1	16.8	22.9	27.1	27.1	23.0	16.6	8.5	2.4	-1.6		
평년편차($^{\circ}\text{C}$)	-1.7	+1.5	+1.0	-0.5	+1.5	+2.5	+2.0	+2.5	+2.3	+0.9	+1.3	-0.7	평년(1991 ~ 2020년)	
순위(상위)	37	7	10	33	1	2	2	2	1	11	10	37	1973 ~ 2026년	

※ 전국평균 및 순위: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한 전국 6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((1973~1989년) 56개 지점, (1990~2026년) 62개 지점)



주요 기후요소 비교 - 강수·눈일수

작년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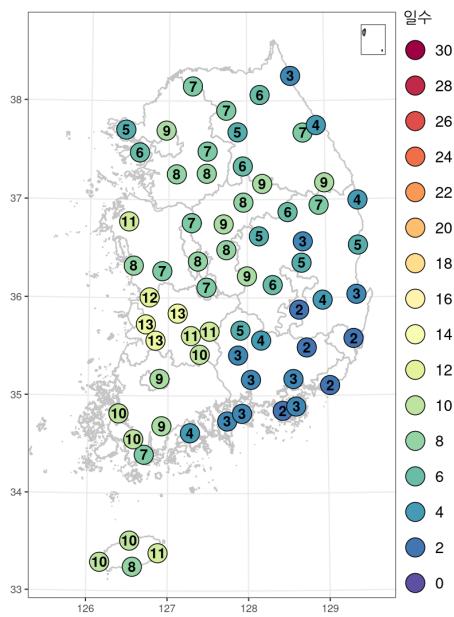
• [강수일수] 올해(3.7일) vs 작년(6.5일)

강원 일부 지역(홍천, 인제, 철원, 강릉)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일수가 작년보다 적었습니다(평년 6.5일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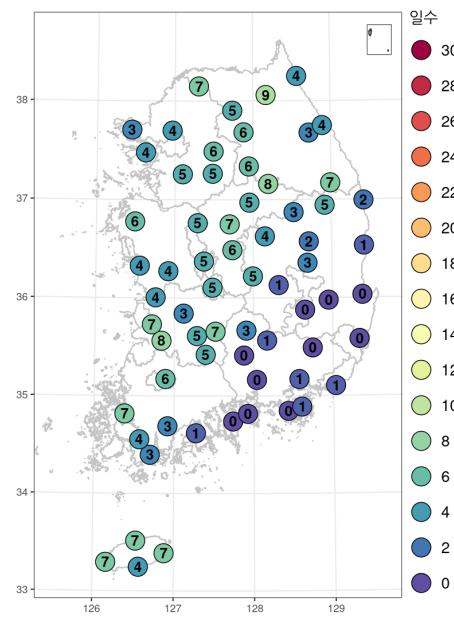
• [눈일수] 올해(6.6일) vs 작년(9.7일)

전국 대부분 지역(울산 제외)에서 눈일수가 작년보다 적었습니다(평년 6.2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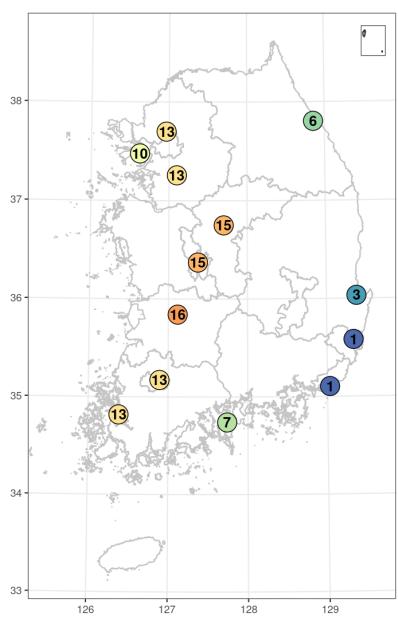
2025년 1월 강수일수(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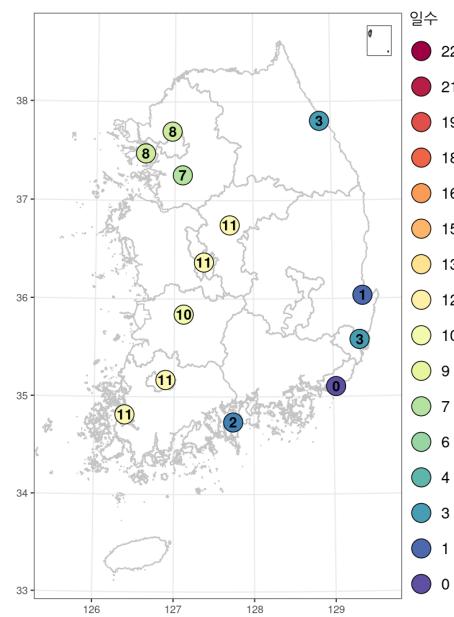
2026년 1월 강수일수(일)



2025년 1월 눈일수(일)



2026년 1월 눈일수(일)



※ 강수일수: 일강수량이 0.1mm 이상인 날의 일수

※ 눈일수: 눈, 소낙눈, 가루눈, 눈보라, 소낙성진눈깨비, 진눈깨비, 싸락눈 중 어느 하나가 관측된 일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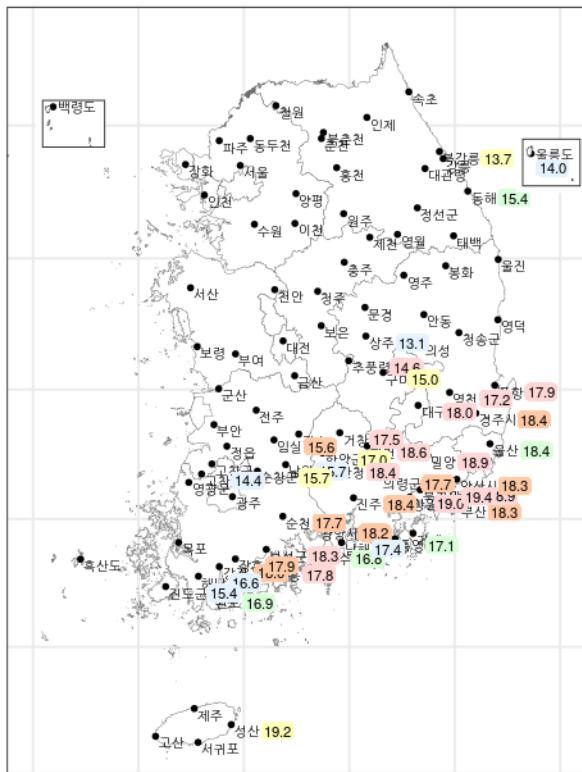
주요 기후요소 비교-극값

우리나라 극값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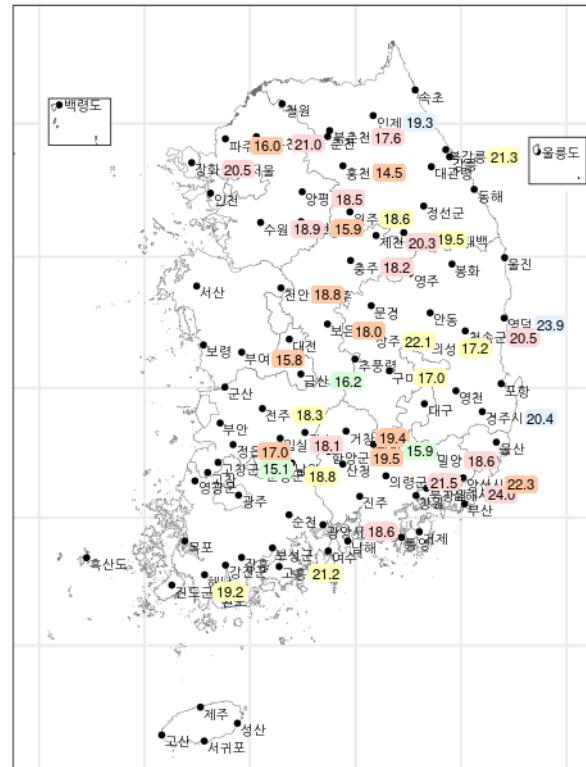
- [기온] 1월 중반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, 일최고기온 최고 5위 이내를 기록한 지점이 있습니다.
- [풍속] 평년 대비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일최대순간풍속 최대 5위 이내를 기록한 지점이 많습니다.

■ 1위 ■ 2위 ■ 3위 ■ 4위 ■ 5위

월최고기온 최고(°C)



일최대순간풍속 최대(m/s)



* 각 지점별 관측개시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관측한 93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(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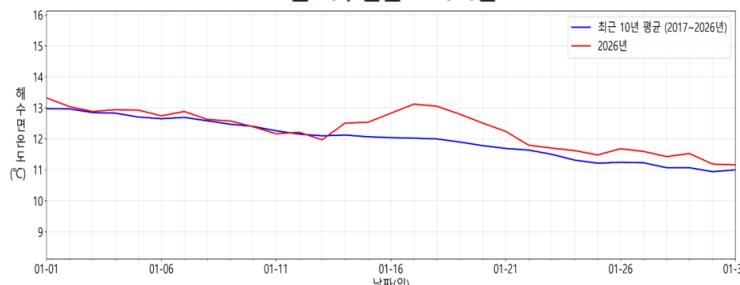
1월 해양 기후 특성

한반도 해수면온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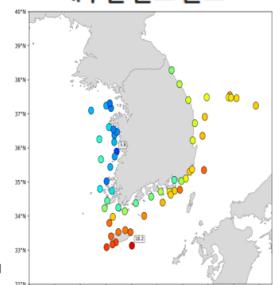
- [관측자료]** 1월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12.4°C 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. 해역별로 남해, 동해는 각각 16.0°C , 14.1°C 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0.7°C , 0.2°C 높았으나, 서해는 7.1°C 로 최근 10년 평균과 같았습니다.
- 지난 12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양 열용량*이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,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따뜻한 해류가 평년보다 강한 상태가 지속되어 남해와 동해의 해수면 온도는 높게 나타났습니다. 1월 하순 북극의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서해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평균 수준으로 하강하였습니다.
* 해양 열용량: 일정 수심 범위의 바닷물이 저장하고 있는 열의 총량으로, 열용량이 클수록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음
- [재분석자료]** 서남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 해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 온도 분포를 보였습니다.

관측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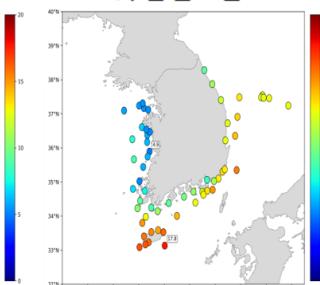
1월 해수면온도 시계열



2026년 1월 평균 해수면 온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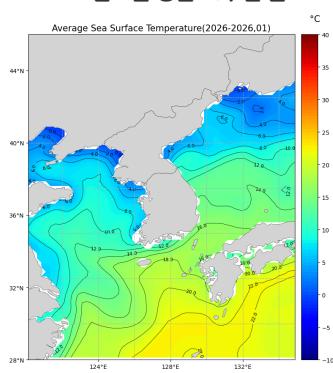


최근 10년 1월 평균 해수면 온도 분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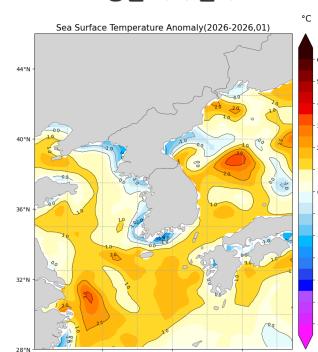


* 국가승인통계 기상청 해양기상부이 지점 중 10년 이상 관측자료가 확보된 17개 지점 활용(해수면 온도 분포는 상세 분석을 위해 해양기상부이 17개 지점과 파고부이 43개 지점 관측값을 함께 제공함)

2026년 1월 평균 해수면 온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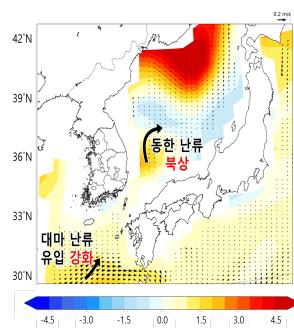


평년 대비 편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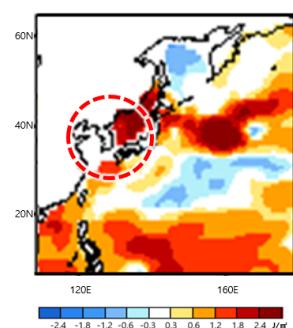


재분석자료

2025년 12월 해류 편차



2025년 12월 해양 열용량(0~300m) 편차



* 자료출처: NOAA OISSTv2 (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version2, 최적 내삽(버전2)된 해수면 온도), NCEP GODAS(해류, 해양 열용량) 재분석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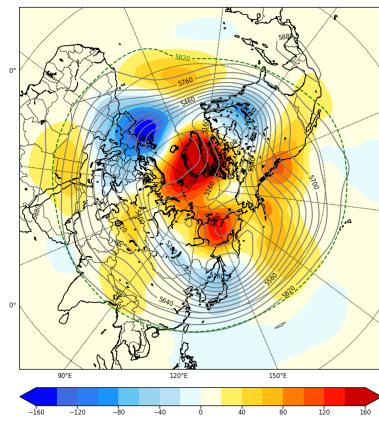
기후학적 원인분석

전 지구 순환장

- [500hPa 지위고도] 그린란드, 북유럽, 서시베리아, 동시베리아, 베링해 부근, 캐나다 서부, 미국 서부 등에서 평년보다 높은 지위고도가 나타났고, 유럽, 우리나라, 일본, 캐나다 동부, 미국 동부 등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지위고도가 나타났습니다.
- [해면기압] 그린란드, 북유럽, 서~중시베리아, 베링해 부근에서 평년보다 높은 해면기압이 나타났고, 유럽, 일본, 캐나다 동부 등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해면기압이 나타났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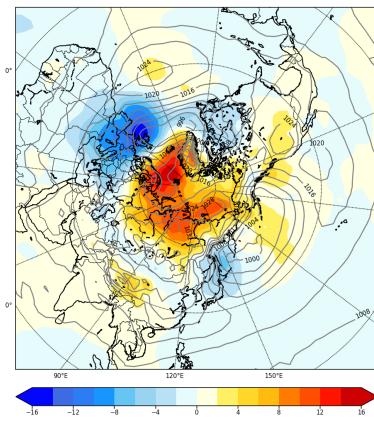
※ 지위고도: 지면에서 특정 기압이 되는 높이로 지위고도가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, 낮으면 저기압을 의미

500hPa 지위고도(m)



- ▶ 채색: (빨강)평년(1991~2020년)보다 높은 지위고도, (파랑)평년보다 낮은 지위고도
- ▶ 실선: (검정)1월 평균 지위고도, (초록)1월 평년 지위고도

해면기압(hP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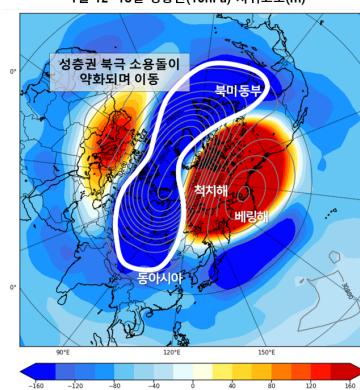


- ▶ 채색: (빨강)평년(1991~2020년)보다 높은 해면기압, (파랑)평년보다 낮은 해면기압
- ▶ 실선: (검정)1월 평균 해면기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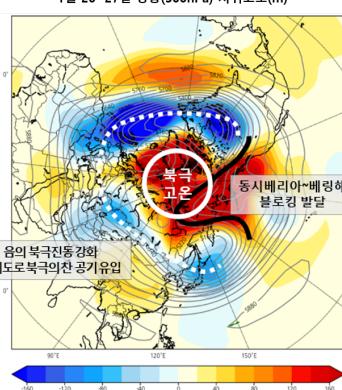
※ 자료출처: 미국 환경예측센터 NCEP(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) 재분석자료

성층권 북극 소용돌이 약화

1월 12~18일 성층권(10hPa) 지위고도(m)



1월 20~27일 상층(500hPa) 지위고도(m)



• [성층권 북극 소용돌이 약화]

: 성층권 북극 소용돌이*의 약화가 음의 북극진동과 베링해 부근의 블로킹 발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. 성층권 북극 소용돌이는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극 지역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데, 이러한 성층권 북극 소용돌이의 약화는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유입되기 좋은 조건을 형성하며 음의 북극진동을 강화하고, 베링해 부근에 블로킹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기간 동안 이러한 기압계 패턴 특성과 관련하여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, 유럽, 러시아 캄차카반도, 북미 등 북반구 중위도 전역에서 한파가 발생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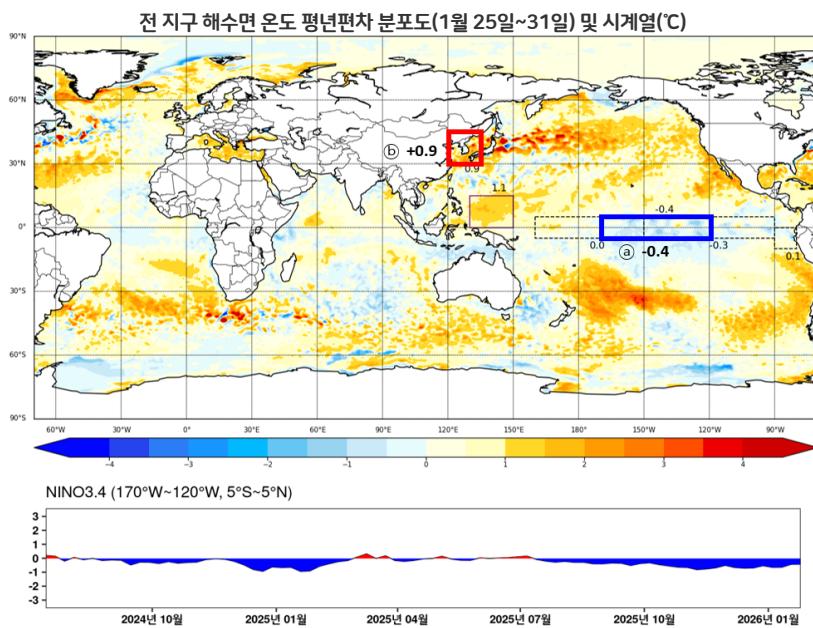
* 북극 소용돌이: 겨울철 성층권 북극에 형성되는 거대한 저기압성 소용돌이로 편서풍 띠 형태를 보이며, 차가운 공기 덩어리를 북극에 가두는 역할, 북극 소용돌이가 약해지거나 이동하거나 나뉘지는 경우 성층권 온도가 급상승하고 대류권 순환에도 영향을 주어 극 제트기류도 약해져 차가운 북극 공기가 중위도로 내려옴

기후 감시 정보

해수면 온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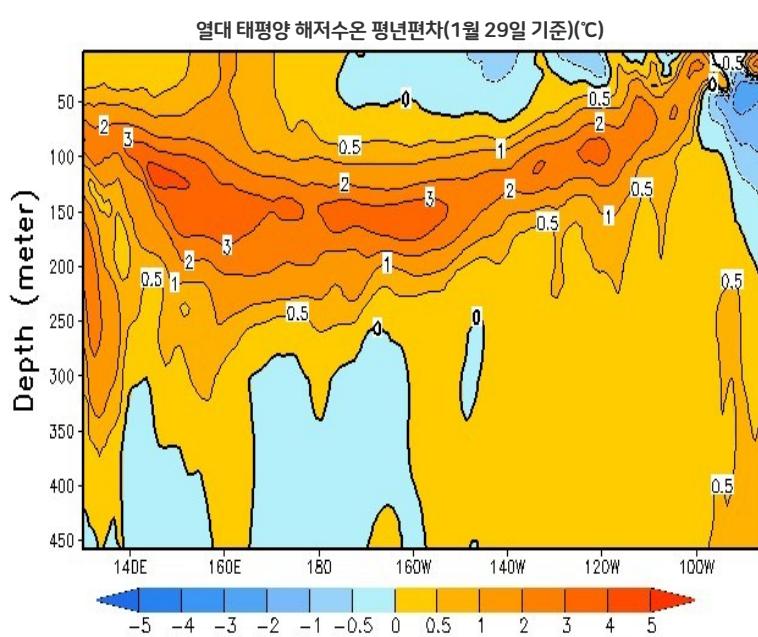
▶ 우리나라 엘니뇨(라니냐) 정의:

엘니뇨 · 라니냐 감시구역(열대 태평양 Nino3.4 지역: 5°S~5°N, 170°W~120°W)의 3개월 이동 평균한 해수면 온도의 평년편차가 +0.5°C 이상(-0.5°C 이하)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(라니냐)의 시작으로 봄



• [전 지구 해수면 온도]

: 최근 해수면 온도는 열대 태평양 엘니뇨·라니냐 감시구역(④)에서 평균 26.1°C로 평년보다 0.4°C 낮았고, 우리나라 주변(⑤)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 11.3°C로 평년보다 0.9°C 높았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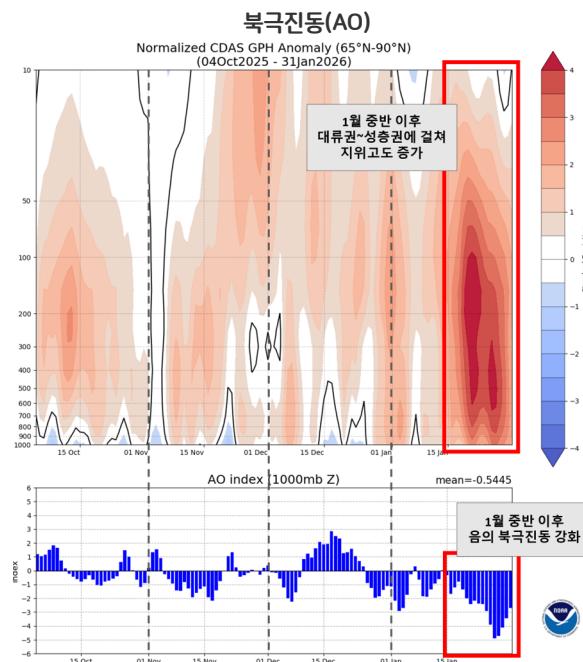


• [열대 태평양 해저수온]

: 1월 29일 기준, 중태평양 표층 (50m 내)과 수심 200m 이내 동태 평양(100°W~90°W)에서 -3.0~-0.5°C의 음의 해저수온편차가 나타나고 있고, 그 외 수심 300m 이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0.5~3.0°C로 양의 해저 수온편차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

기후 감시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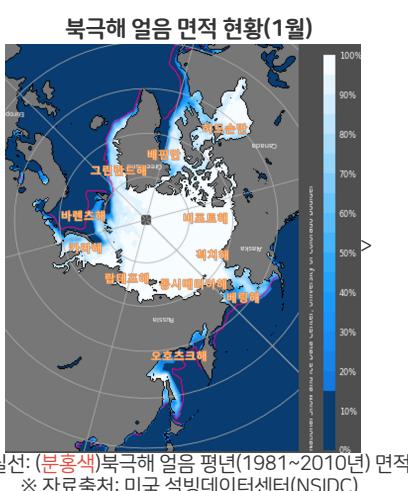
계절 감시 및 분석



• [북극진동(AO)]

: 1월 하순 음의 북극진동이 더욱 강하게 발달하면서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고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.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유입되기 쉬운 조건이 형성된 기압계 상황에서, 우리나라를 베링해 블로킹에 막혀 상층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하순 동안 추위가 이어졌습니다.

※ 북극진동(AO):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주기적으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으로 양(음)의 북극진동일 때는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남하하기 어려움(쉬움)



• [북극해 얼음]

: 북극해 얼음은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,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라-바렌츠해에서 평년보다 적은 분포를 보였습니다. 베링해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습니다.

※ 카라-바렌츠해 해빙이 적은 경우 우랄산맥 부근에서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동아시아에 한파를 유도할 수 있음



전 세계 기온

- 전 세계적으로 1월 평균기온은 12.8°C 였으며, 평년(12.5°C) 대비 0.3°C 높았습니다.
- [평년 대비 높은 지역] 동시베리아, 아프리카 북서부, 칠레, 그린란드, 호주
- [평년 대비 낮은 지역] 유럽, 중동, 서~중앙시베리아, 알래스카, 미국 동부, 호주 북동부, 남아메리카 남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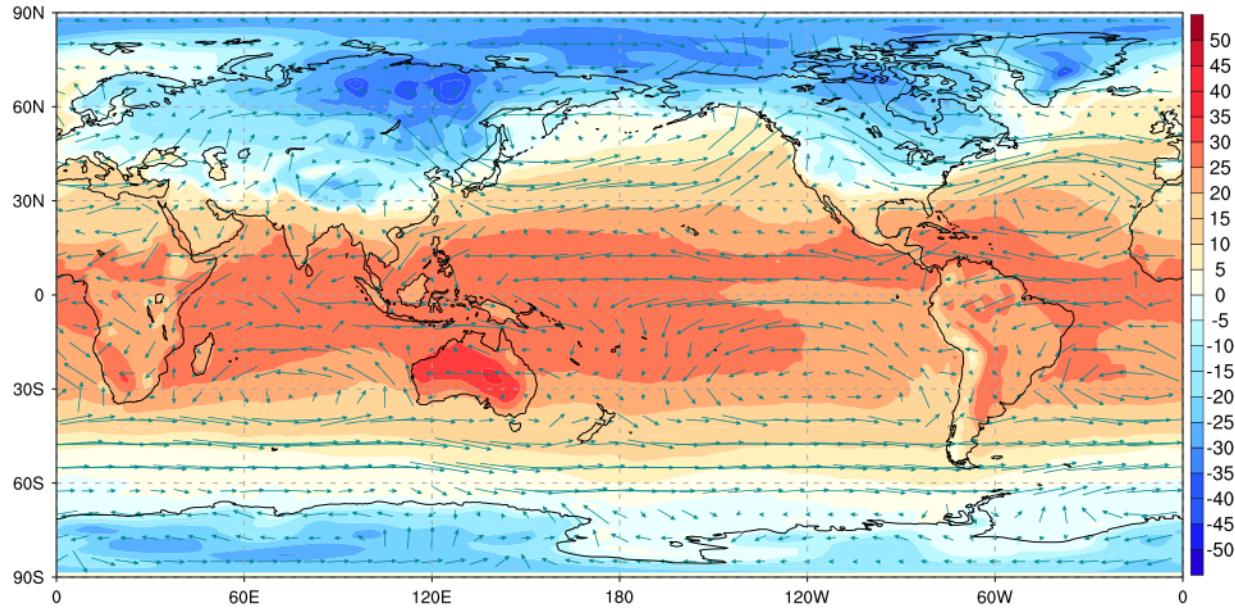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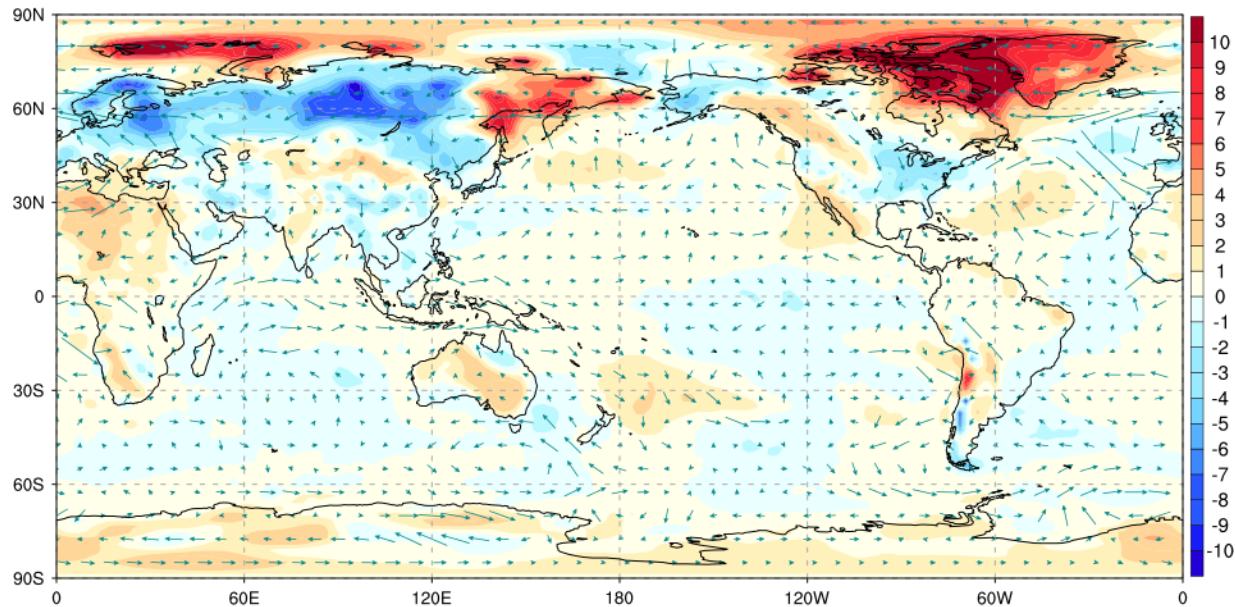
a) 평균기온($^{\circ}\text{C}$)b) 평균기온 평년편차($^{\circ}\text{C}$)

그림 a) ▶ 채색: (빨강) 0°C 이상의 평균기온, (파랑) 0°C 미만의 평균기온, 화살표: (청록색)850hPa 평균바람

그림 b) ▶ 채색: (빨강)평년보다 높은 기온, (파랑)평년보다 낮은 기온, 화살표: (청록색)850hPa 평균바람 평년편차

그림 b) 평균기온 평년편차($^{\circ}\text{C}$): 2026년 1월 평균기온 - 평년(1991~2020년) 1월 평균기온

* 자료출처: 미국 환경예측센터(NCEP,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) 재분석자료(2m 평균기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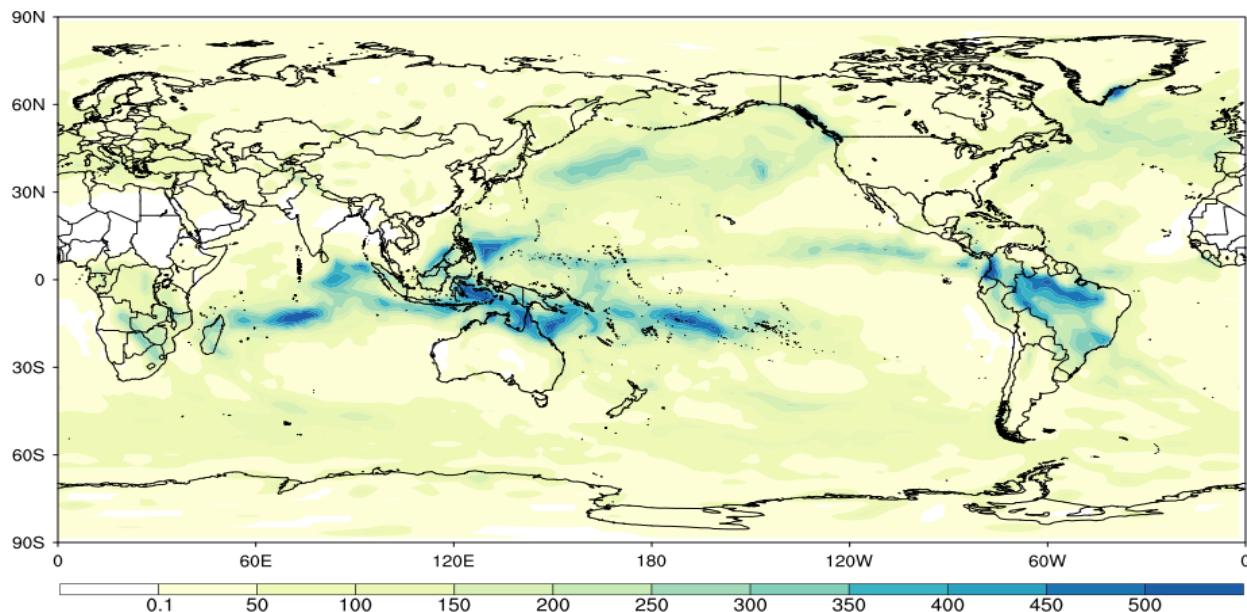
* 전 세계 평균기온값과 평년편차값은 모델 기반 재분석자료를 평균한 값이므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

전 세계 강수량

- 전 세계적으로 1월 누적강수량은 83.5mm였으며, 평년(86.5mm)수준 이었습니다.
- [평년 대비 많은 지역] 남~동유럽, 중국 북부, 필리핀, 호주 북동부, 캐나다, 남아메리카 북서부
- [평년 대비 적은 지역] 북유럽, 태국, 중국 남동부, 말레이시아, 일본, 호주 남부, 남아메리카 남부

a) 강수량(mm)



b) 강수량 평년편차(m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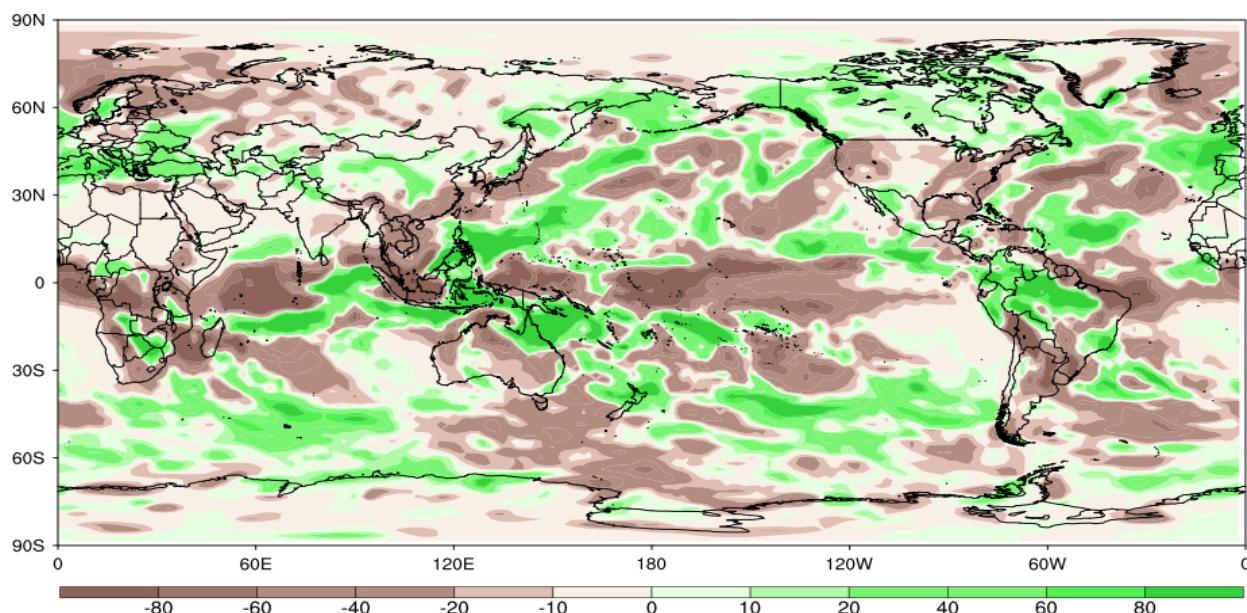


그림 a) ▶ 채색: (초록)월 누적 강수량

그림 b) ▶ 채색: (초록)평년보다 많은 강수량, (갈색)평년보다 적은 강수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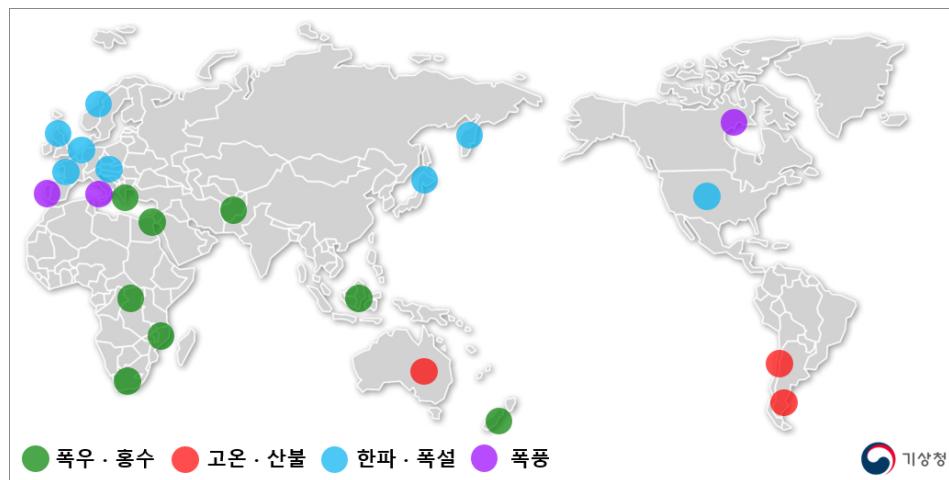
그림 b) 강수량 평년편차(mm): 2026년 1월 누적 강수량 - 평년(1991~2020년) 1월 누적 강수량

※ 자료출처: 미국 환경예측센터(NCEP,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) 재분석자료

※ 전 세계 평균 누적 강수량값과 평년편차값은 모델 기반 재분석자료를 평균한 값이므로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

1월 전 세계 기상재해



● 폭우·홍수

- (아프가니스탄) 폭우와 폭설로 인한 돌발 홍수로 최소 17명 사망(1.1.), 중·북부서 사흘간 폭설·폭우로 61명 사망, 110명 부상(1.22.~1.24.)
- (인도네시아) 술라웨시섬 홍수·산사태로 최소 14명 사망·4명 실종(1.6.), 자바섬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, 70명 실종(1.24.~2.1.)
- (이스라엘) 가자지구에 폭우, 최소 6명 사망, 피란민 텐트 수백 동 침수(1.13.)
- (남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, 모잠비크 등) 폭우로 인한 홍수, 남아프리카공화국 19명 사망, 모잠비크 103명 사망(1.13.)
- (뉴질랜드)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, 집과 야영장을 덮쳐 최소 2명 사망(1.22.)
- (그리스)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, 2명 사망(1.22.)
- (콩고민주공화국) 동부 루바야 광산 지대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, 최소 200명 사망(1.28.)

● 고온·산불

- (아르헨티나) 체감온도 42도 육박, 총3만 가구 정전 피해(12.30.)
- (칠레) 산티아고 낮최고기온 35°C 안팎, 중부 중심 폭염특보(12.31), 중남부 기록적 폭염 속 산불 발생, 19명 사망, 약 200㎢ 소실(1.20.)
- (호주) 남동부 40도 넘는 폭염, '재앙(catastrophic)' 단계 산불 확산, 1명 사망(1.11.), 50도 육박한 극한 폭염으로 대형 산불 발생, 지역별 역대 최고 기온 기록 경신(1.29.)

● 한파·폭설

- (프랑스·보스니아·네덜란드·영국) 북극발 유럽 한파와 폭설로 항공편 취소, 도로와 철도 교통 마비, 일부 학교 휴교, 프랑스 5명 사망, 보스니아 1명 사망(1.6.)
- (핀란드) 북부 키틸래 공항에 영하 37도 한파로 항공편 취소(1.13.)
- (러시아) 캄차카반도에 강풍을 동반한 폭설로 인해 최소 2명 사망, 평균 적설량 170cm, 일부 지역 250cm 기록(1.20.)
- (미국) 거울 폭풍, 폭설로 인한 차량 100대 연쇄추돌 발생, 수십 명 부상(1.20.), 초강력 눈폭풍과 한파로 인해 113명 사망, 수천여 가구 정전, 항공편 결항(1.29.)
- (일본) 홋카이도에 112cm 눈, 교통 마비, 공항에 7천 명 고립(1.27.)

● 폭풍

- (캐나다) 동부에 눈폭풍 영향으로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45cm 적설, 역대 최고 기록(1.27.)
- (이탈리아) 남부 시칠리아에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, 지반이 무너지며 4km 넘는 절벽 생성, 주택 수십 채 파손(1.29.)
- (포르투갈·스페인) 폭풍 '크리스틴' 강타, 포르투갈 3명, 스페인 1명 사망, 80만 명 이상 정전 피해(1.29.)

※ 우리나라와 전세계 기상이슈에 대한 정보를 매주 주간기후이슈를 통하여 기후정보포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링크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<http://www.climate.go.kr/home/bbs/list.php?code=27&bname=scrap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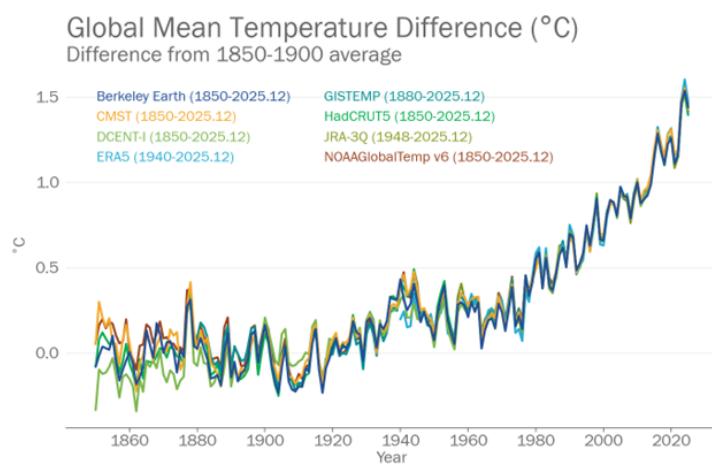


- 2025년은 역대 2~3번째로 따뜻한 해 -

전 지구 평균기온 산업화 이전 대비 $1.44(\pm 0.13)^\circ\text{C}$ 상승

WMO(세계기상기구)가 1월 14일 발표한 '2025년 전 지구 기후 현황'에 따르면, 2025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(1850~1900년) 대비 $1.44(\pm 0.13)^\circ\text{C}$ 상승하였고 8개의 국제 데이터 세트* 중 2개는 역대 2위, 6개는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. 2015년부터 2025년은 관측 아래 가장 더운 11개의 해이며 그중 2023년~2025년은 역대 1~3위를 기록하였습니다. 라니냐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.

* 국제 데이터 세트: 유럽 중기예보센터(ECMWF)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(ERA5), 일본 기상청(JRA-3Q), 미국 항공우주국(NASA)(GISTEMP v4), 미국 국립해양대기청(NOAGlobalTemp v6), 영국 기상청과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 기후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HadCRUT.5.1.0.0, Berkeley Earth(미국), 동적 일관성 양상별 기온(DCENT/영국, 미국), 중국 통합 지표면 기온 데이터세트(CMS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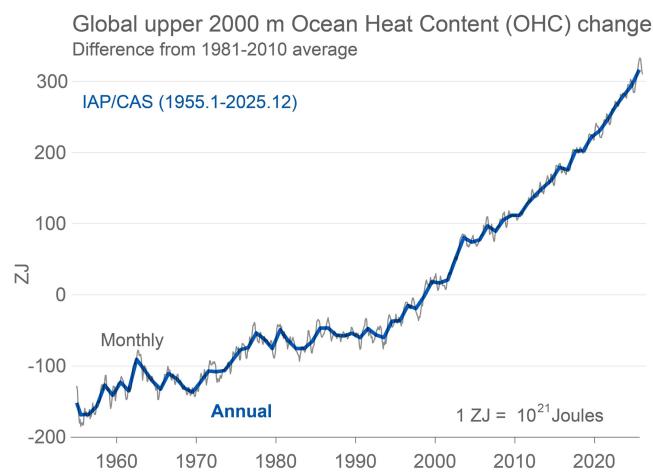


[그림 1] 8개 국제 데이터 세트로부터의 전 지구 연평균기온 편차(1950~1900년 평균 대비)

*출처: 세계기상기구(WMO)

2025년 해양온난화의 지속

2025년 해양 수온은 기후시스템 내 장기간에 걸친 열 축적을 반영하여 기록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(Advances in Atmospheric Sciences 논문). 2025년 전 지구 해양 열용량은 2024년 대비 $23 \pm 8 \text{ ZJ}$ (제타줄) 증가하였고 이는 2024년 전 세계 총 전력 생산량의 약 200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(중국과학원 Lijing Chenge 연구팀). 전 지구 해양의 약 33%는 1958~2025년 기록 중 상위 3위 이내, 약 57%(열대대서양, 남대서양, 지중해, 북인도양, 남극해)는 상위 5위 이내 기록하였고 해양 온난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. 2025년 전 지구 해수면 온도는 1981년~2010년 대비 0.49°C 상승하며 역대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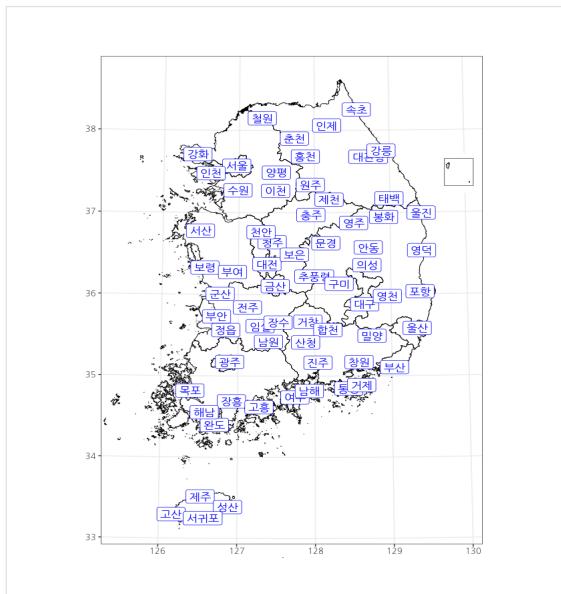


[그림 2] 전 지구 수심 2000m 이내 해양 열용량 편차(1981~2010년 평균 대비)

*출처: 세계기상기구(WMO)



지점 위치정보



▶ 지점 위치정보

- 전국 62개 + 제주 4개 지점 위치

※ 이상고온(저온) 발생일수: 이상고온(저온)은 평년(1991~2020년)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(낮은) 극한현상으로 일최저·최고기온이 90퍼센타일을 초과(10퍼센타일 미만)에 해당하는 일수를 나타냄

※ 강수일수: 일강수량이 0.1mm 이상인 날의 일수

※ 눈일수: 눈, 소낙눈, 가루눈, 눈보라, 소낙성진눈깨비, 진눈깨비, 싸락 눈 중 어느 하나가 관측된 일수

1월 지점별 이상저온 일수 및 현상일수

지점명	이상저온 일수(일)		현상일수(일)		지점명	이상저온 일수(일)		현상일수(일)	
	최고기온	최저기온	강수일수	눈일수		최고기온	최저기온	강수일수	눈일수
속초	7	2	4	-	강화	5	2	3	-
철원	6	3	7	-	양평	2	0	6	-
대관령	4	2	3	-	이천	3	0	5	-
춘천	4	4	5	-	인제	5	0	9	-
강릉	5	2	4	3	홍천	4	0	6	-
서울	3	4	4	8	태백	4	2	7	-
인천	7	6	4	8	제천	4	0	8	-
원주	6	0	6	-	보은	3	1	6	-
수원	5	1	5	7	천안	4	1	5	-
충주	3	0	5	-	보령	2	4	4	-
서산	7	1	6	-	부여	3	1	4	-
울진	6	3	2	-	금산	4	0	5	-
청주	4	1	7	11	부안	2	0	7	-
대전	4	2	5	11	임실	3	0	5	-
추풍령	5	5	5	-	정읍	7	1	8	-
안동	5	2	2	-	남원	5	0	5	-
포항	6	2	0	1	장수	5	0	7	-
군산	4	7	4	-	장릉	5	5	3	-
대구	5	5	0	-	해남	6	6	4	-
전주	4	1	3	10	고흥	5	5	1	-
울산	7	5	0	3	봉화	5	3	5	-
창원	5	5	1	-	영주	5	1	3	-
광주	4	2	6	11	문경	5	2	4	-
부산	6	3	1	0	영덕	5	3	1	-
통영	4	5	0	-	의성	5	0	3	-
목포	7	2	7	11	구미	4	1	1	-
여수	4	5	0	2	영천	5	2	0	-
완도	4	7	3	-	거창	5	1	3	-
제주	4	2	7	-	합천	6	0	1	-
고산	7	2	7	-	밀양	5	5	0	-
성산	6	4	7	-	산청	5	2	0	-
서귀포	3	3	4	-	거제	7	2	1	-
진주	5	5	0	-	남해	5	2	0	-